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August 14, 2013

Biweekly Report

- 2** The Great Deceleration
김현진, from The Economist
- 5** India Chooses Rajan to Restore Stability As It Tackles 'Tryst with Destiny'
박예지, from The Economist
- 8** Iran's President Puts New Focus on the Economy
김진수, from The New York Times
- 11** This Is What Would Happen If Fast-Food Workers Got Raises
유안규,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14** Boycotting the 2014 Sochi Olympics Is a Really Bad Idea
전경령,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17** 2013年第二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남월령, from 凤凰财经

Special Report

- 19** Supermajordämmerung
문소정, from The Economist
- 24** Japanese Earnings Surge, but Big Risk Looms
강구민,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The Great Deceleration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3.07.27\)](#)

* 요약자: 김현진 (guswls206@hanyang.ac.kr)

* 키워드: 신흥시장, 성장 둔화

“신흥시장의 둔화는 파산의 시작이 아닌 세계 경제의 전환점”



□ **신흥 경제국들은 21세기 세계 경제 돌풍을 주도하며 급격히 성장했지만, 현재는 성장이 둔화하는 추세**

- 중국은 올해 공식적인 목표인 7.5%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0년대 두 자리 성장률을 꾸준히 보이던 때와 상반된 모습
- 현재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성장률은 호황이 한창일 때의 수치의 반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2009년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현재 인도는 약 5%, 브라질과 러시아는 약 2.5%의 연 성장률을 나타냄

□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총 생산에서 신흥 경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8%에서 50%로 증가함
- 반면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꾸준히 감소해왔고 앞으로 10년간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은 투자 주도 성장에서 더욱 균형 있는 소비중심 모델로 이동하고 있음**

- 중국 중앙 정부는 손실을 끌어안고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견고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음
 - 견고한 재정은 중국 시장에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유동적인 환율, 거대한 외화 보유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율 등 좋은 방어책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예전 기록을 깨지 못하며 더딘 성장 속도를 보이기 시작함**

- 중국의 투자와 수출 모델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
- 중국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자 인구는 줄어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다른 신흥 경제국들의 경제 성장 속도 역시 더뎠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폭등한 자원 가격에 기반한 것임
- 브라질은 원자재와 내수 신용의 호황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인플레이션과 더딘 성장의 벽에 막혀 있음
- 인도는 GDP가 연간 두 자릿수 성장치를 보이며 큰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지만 2000년대와 같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시장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 흐름의 전환점을 의미함

- 미국, 일본, 또는 유럽 지역의 반등 없이는 세계 경제는 현재의 3% 이상 성장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됨
- 중국시장이 지난 십 년 동안 보여준 엄청난 성장과 파괴력은 독특한 사례로 평가됨
- 미래의 경제 성장은 더욱 광범위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브릭스(BRICs)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FBI

India Chooses Rajan to Restore Stability As It Tackles ‘Tryst with Destiny’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3.08.06\)](#)

* 요약자: 박예지 (shiellin@naver.com)

* 키워드: **라잔, 인도 경제**

“침체된 인도 경제의 구세주로 주목 받고 있는 신임 인도준비은행장 라잔”

□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루피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인도 경제가 불안정해짐

- 지난 8년간 8~9%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5~5.5%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5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한 전후 루피화는 급격하게 평가절하 됨
 - 지난 2년간 루피화는 39% 평가절하되었으며, 5월 발표 이후 당좌예금이 큰 폭의 적자를 동반하는 와중에 다시 13% 평가절하됨

□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신임 인도준비은행장으로 라그하람 라잔을 발탁

- 지난해 인도 정부 수석 경제학 고문을 역임한 라잔은 IMF의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할 당시부터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하여 경고해옴
-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력을 가진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시장 관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

□ 라잔 신임 인도준비은행장은 루피화의 평가절하를 극복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책임자로 평가됨

- 라잔은 현재 인도준비은행장에 책임자로 여겨짐
 - 라잔은 IMF에서 일했으며 세계 금융시장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경제학자로서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 왔음
- 라잔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라잔의 통제 아래 인도 경제와 루피화가 안정될 것이라 기대함


□ 인도의 경제 위기는 중앙정부와 준비은행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심화됨

- 인도 정부는 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제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지난 몇 달간 루피화의 평가절하 문제는 중앙은행의 안일하고 모호한 대응으로 오히려 악화됨
 - 6~7월 사이에만 105억에 달하는 외국인 펀드가 인도에서 빠져나갔으며, 루피화의 평가절하는 계속되고 있음
- 인도준비은행은 핫머니나 해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통화 유동성을 제한했으나, 이는 시장에서 물가 인하 정책이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라잔과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인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확신함

- 라잔은 취임 인사에서 “인도가 직면한 문제들을 지금 당장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 선언함
- 시장 관계자는 인도 경제를 현대화할 마스터플랜을 세운 라잔이라면 경제를 회복시키고 안정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함

□ 그러나 루피화의 평가절하를 완화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루피화를 적절한 환율로 유지하며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루피화의 환율을 인상한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나 경기 지표의 악화가 예상되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더뎠을 것이기 때문
- 선거를 앞둔 중앙정부는 민감한 경제적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인도의 경제 문제의 급격한 호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Iran's President Puts New Focus on the Economy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3.08.03\)](#)

* 요약자: 김진수 (jinsuking@hanyang.ac.kr)

* 키워드: 이란, 핵개발, 경제침체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갈림길에 선 이란”

□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로하니는 침체된 이란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선언함

- 로하니는 그 동안의 폐쇄적인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타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것을 선언함
- 로하니와 카메네이 전 대통령은 모두 지속적인 핵 개발로 인한 이란의 국제적 고립이 이란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함

□ 로하니와 카메네이 전 대통령 모두 경제발전이 이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합의하나 그 해결책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

- 카메네이는 경제발전은 교류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주요 이슈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자급자족을 강조함
- 반면 로하니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럽이나 심지어 적국인 미국과의 교류도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힘

□ 지금과 같은 이란의 경기 침체는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에서 시작됨

-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은 석유로부터 얻은 이익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이후 석유 수출이 대폭 줄어들자 국가 경제도 위협을 받음
- 로하니 정권은 아흐마디네자드의 정권의 잘못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 되었다고 비판함
 - 결과적으로 국가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었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아흐마디네자드는 경기 침체에 대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로하니 현 대통령은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의 경제 실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함**

- 아흐마디네자드는 주요 수출품의 가격을 올렸으며 매달 600만 명에게 보조금으로 현금 13달러씩 지급했음을 강조
- 이에 로하니는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때 어떤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았으며 42%의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비판함
- 또한 하루 25만 배럴에 달했던 석유 수출량이 하루 10만 배럴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함

□ **한편 앞으로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이란 제재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
 - 법안의 내용은 현재 이란의 석유를 구매하고 있는 고객이 다른 석유 구입처를 찾도록 요구하는 것
- 다음 달에는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고, 요는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임

□ 이는 이란이 악화되는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

- 로하니의 측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지만, 그 어떠한 압박에도 핵 개발을 중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음
- 핵 개발은 로하니가 경제 문제의 돌파구로 내놓은 국가 간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 

This Is What Would Happen If Fast-Food Workers Got Raise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2013.8.2\)](#)

* 요약자: 유안규 (yag7985@hanyang.ac.kr)

* 키워드: **패스트푸드 산업, 임금**

“수익성 저하, 임금상승 압력으로 위기에 봉착한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

□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의 임금수준은 모든 산업을 통틀어 최하수준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산업의 평균임금은 타 산업보다 현저히 적음
- 최근 뉴욕, 시카고를 포함한 7개의 도시에서 수천명의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단기파업을 일으킴
- 맥도날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예산 정리법을 개발하여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함

□ 패스트푸드 산업의 적절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함

- 파업을 일으킨 패스트푸드 산업 종사자들은 미 연방에 설정된 최저임금인 \$7.25에서 2/3 정도 더 높은 액수인 \$15를 요구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연방의 기본 최저임금인 \$7.25보다 24%가량 많은 \$9 정도의 최저임금을 약속함

□ 일부 경제학자들은 패스트푸드 산업의 최저임금을 \$10.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들은 임금을 \$10.50 수준까지 올려도 패스트푸드점의 운영 비용이 2.7%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10.50 혜택을 받는 직원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또 기업 경영진의 임금상승률을 낮춤으로써 더욱 형평성 있는 임금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함

□ 그러나, 최근 패스트푸드점의 재무상태는 현저히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임금상승은 점포의 이익률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란 의견도 있음

- 패스트푸드점은 크게 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점포와 독립적인 프랜차이즈가 경영하는 점포로 나뉘는데, 세금과 투자비용을 제외한 맥도날드 전체 점포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약 \$39억으로, 기업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현재 임금수준보다 2/3 더 증가한 수준인 \$15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임금은 기업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요소가 되어 이익률을 떨어뜨릴 것임
- 또, 운영과 자금 여력의 차이 때문에 실제적인 수익률 방어력은 회사에서 직접 경영하는 점포보다 독립적인 프랜차이즈가 훨씬 떨어지는 편임
 - 버거킹의 직접경영 점포 수익률은 약 15%를 기록했지만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는 2% 정도에 불과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파업을 앞둔 상태에서 산업이 재조명되었을 뿐, 너무 심각한 수준의 회의론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임금상승이 필연적이라면, 판매가를 상승시키는 것 또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임
 - 임금상승으로 인해 판매가가 상승하는 경우, 결국 임금 상승이 고객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

- 하지만 투자자들이 산업 동향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므로, 패스트푸드 산업의 갑작스러운 몰락이나 이익률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FBI**

Boycotting the 2014 Sochi Olympics Is a Really Bad Idea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3.05.22\)](#)

* 요약자: 전경령 (obooko@hanyang.ac.kr)

* 키워드: 미-러 관계, 올림픽 보이콧

“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보이콧 가능성과 한계”



□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러시아의 행보에 반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존재함**

- 푸틴 정권은 현재 서양 국가들이 연관된 전쟁에서 독재자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 미국이 개입해있는 시리아 내전의 지도자인 바샤-아사드에 무장 장비를 제공하고 있음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방해함
- 지난달 푸틴 정권은 게이 인권 억압하고 관계의 공공화를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함
- 또한, 푸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망명을 승인함

□ **반미적인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해 백악관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

-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예정되어있던 푸틴과의 정상회담 취소를 고려하고 있음
-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과 인권운동가들은 강력대응 방안으로 내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주장함

□ **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미국의 소치동계올림픽 보이콧은,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올림픽 개최까지 논의될 수도 있는 사안**

-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미국이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몇몇 입법자들은 이 발표에 반발함
- 미 대변인은 푸틴이 스노든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미-러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중국에는 보이콧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김

□ 그러나, 전례를 고려하면 보이콧으로 인한 최종피해자는 되려 미국이 될 전망

- 1980년 미국의 모스크마 하계올림픽 보이콧은 1984년 LA 올림픽 게임에서 소련의 보이콧으로 돌아왔음
 - 이에 분노한 미국의 유권자들은 애국주의를 주창한 로널드 레이건을 재선에서 압도적 득표 차로 선출
- 미국이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원래 미국이 획득할 수 있었을 메달을 러시아가 취하게 될 것임
 - 1984년 미국은 174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나, 1980년 미국이 보이콧 한 올림픽에서 러시아는 190개의 메달을 취득해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둠
- 미국이 보이콧을 실시함으로 러시아에 끼칠 수 있는 피해액보다 미국이 잃을 손실액이 절대적으로 큼
 - NBC는 소치 게임을 중개할 권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계약금 7억 7천5백만 달러와 역대 최저수준의 시청률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FBI**

2013年第二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 기사출처: [凤凰财经 \(2013.8.2\)](#)

* 요약자: 남월령 (lucifer77@hanyang.ac.kr)


* 키워드: 화폐정책, 구조조정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을 병행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 2013년 상반기 중국인민은행은 당국과 국무원의 지휘하에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실행하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조절함
 - 재대출, 어음 할인액, 단기 유동성 조절 등과 같은 방법의 조합과 합리적인 운영은 화폐 신용 대출량의 안정적인 증가를 가져옴
 - 신용대출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용대출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며 위안화가 해외무역과 투자에 많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업의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외국 화폐 관리체제의 개혁 강도를 높임
- 이에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산업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냄
 - 소비는 안정된 속도로 증가하고 농업의 생산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업의 구조조정도 점차 추진되고 있음
 - 국내 GDP가 24.8만 억 위안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시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소비가격도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4% 증가함
- 하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는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의 시기에 처해 있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위험 요소도 많은 상태

- 중국은 현재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는 중
 - 현대화 서비스, 기술산업 등 각종 신흥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임
 - 적극적으로 산업개혁을 추진하는 산업, 창의적인 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산업 등이 가장 뛰어난 발전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와중에 전통 제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
- 결국 현재 중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성장, 원활한 구조조정, 리스크의 예방 그리고 개혁임

□ 2013년 하반기에 중국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미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 안정된 성장, 구조조정, 개혁의 추진, 리스크 예방을 통해 경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맞는 최상의 금융환경과 화폐 조건을 창출 하려고 함
- 다양한 화폐정책을 이용하여 건전한 거시정책과 화폐신용대출 시행 및 사회 용자규모의 안전한 증가를 추진 중임
 - 사회 용자규모는 일정 기간 내의 실물경제가 금융체계에서 획득한 모든 자금을 측정하여 전면적인 사회용자 활동을 알기 위한 것임
- 금융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화폐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금융자원이 소미기업(小微企业: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기업)의 발전에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금융시장에 민간자본을 확대하여 실물경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Supermajordämmerung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3.08.03\)](#)

* 요약자: 문소정 (wooltoto@hanyang.ac.kr)

* 키워드: 석유화학기업, 수요감소, NOC

“수요가 감소하면서 흔들리는 석유자원과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의 입지”



□ 20세기를 장악하던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의 쇠락이 예상됨

- 한때 '일곱 자매'라고 불리며 1950년대 세계석유시장을 지배했던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의 앞날이 어두워짐
 - '일곱 자매'의 매장량은 과거 세계 전체 매장량의 85%를 차지했음
- '일곱 자매'는 1990년대 석유 가격의 하락 이후 인수합병으로 현재 4개 기업(엑슨모빌, BP, 로열더치셸, 세브론)으로 재편됨

□ 이들의 쇠락의 원인은 석유의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감소로 예측됨

- 한때 에너지 자원의 지나친 소비로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지적됨
 - 신형 자동차의 연비 효율이 점점 개선되어 출시되는 실정이며, 과거와 달리 신흥국도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기업들은 새로운 유전 개발 사업에 난항을 겪음
- 선진국의 원유 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신흥국 경제에서도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는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석유 소비 환경이 점차 고효율을 지향하면서 석유의 소비가 둔화됨

- 석유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연료 분야에서 고효율 지향이 대두됨
 - 시티그룹은 자동차의 연비가 연 2.5%씩만 증가해도 석유 수요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함

- 엔진과 자동차 설계의 발전, 내연기관의 연비 향상, 자동차 소재의 혁신으로 석유의 지배력이 약화됨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전기차 등의 개발도 석유 소비 환경에 영향을 줌

□ 신흥국들은 더 이상 과거 선진국의 석유 소비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환경파괴와 에너지 무분별한 소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

- 중국은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6.9리터/100km, 2020년까지 5리터/100km 수준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함
- 시티그룹은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이 연간 3~4%씩 향상되면 2020년까지 하루 380만 배럴의 소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함

□ 뿐만 아니라 석유의 대체 수단인 셰일 가스의 개발도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을 위협함

- 미국에서 개발된 수압파쇄 기술(Fracking: Hydraulic Fracturing)로 셰일 가스 생산붐이 일어남
 - 수압파쇄 기술은 종전의 기술로는 채굴할 수 없었던 셰일층에서의 가스 채취를 용이하게 하여 세계적으로 대체석유자원 비축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킴
- 시티그룹은 셰일 가스로 인해 감소하는 석유 수요는 2020년까지 35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함
- 기존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은 셰일 가스 개발 시장을 선점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사용되는 신기술 축적 기회도 놓쳤다는 점에서 위기를 직면함

□ 한편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서방 석유기업은 새로운 유전 개발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음

- 주요 산유국들은 석유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고 자원무기화를 지칭하는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함
- 산유국들은 서방 석유화학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유전 개발권을 자국의 국영석유기업에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는 더욱 확대될 것임
- 서방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강요받거나 해당 지역의 국영석유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배제됨

□ 대형 국영석유기업들(National Oil Company)은 과거의 석유화학기업의 자리를 대체하며 부상함

-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함
 - 정부는 국영기업의 수익을 이용해 새로운 유전과 천연가스 산지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남
- 유전서비스기업이 국영석유기업을 도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며 재정적인 위험을 함께 부담해주기도 함
-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에 의하면, 대형 석유화학기업의 투자규모는 44억 달러인 데 비해 5개 대형 국영기업들의 규모는 이를 웃도는 53억 달러를 기록함


The big league
Oil companies

Company	Production, 2012 or latest, m b/d*	Reserves, 2010 or latest, bn barrels*	Market value, 2013†, \$bn
Saudi Aramco	12.7	307	na
Gazprom (Russia)	8.4	112	92
NIOC (Iran)	6.1	311	na
Exxon Mobil	4.1	25	417
PetroChina	3.6	23	239
Kuwait Petroleum	3.3	112	na
Shell	3.3	8	218
Pemex	3.2	11	na
BP	3.0	7	130
Chevron	2.9	9	244

Sources: Oliver Wyman; Wood Mackenzie; Bloomberg; company reports *Of oil equivalent †July 31st

□ 이에, 대형 석유화학기업들은 사업 환경 변화에 맞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함

- 셰일 가스의 석유 대체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석유 수요의 감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셰일 가스정은 일반적인 석유정보다 빨리 고갈되고 셰일 가스의 매장량 유추는 쉽지 않음
 - 셰일 가스의 대두로 낮아진 석유 가격이 오히려 셰일 가스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불필요한 사업부문은 분리매각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규모 석유회사 BP와 로열더치셸은 정제유 생산보다 수익이 많고 성장 가능성이 큰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정제공장을 매각함
 -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측면에서 석유 추출 노하우나 경험이 집약된 독자적인 인하우스(In-house)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Japanese Earnings Surge, but Big Risk Looms

* 기사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2013.08.06\)](#)

* 요약자: 강구민 (rkdrns19@hanyang.ac)

* 키워드: 일본 기업 회복세, 중국 의존도

“중국의 경기둔화에 영향 받은 일본기업의 회복세 지체”

□ 일본 기업들은 최근 엔화 약세와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2분기 실적 향상에 성공

- SMBC닛코증권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TSE) 1부에 상장된 기업의 올 2분기 총 당기순이익은 모두 5조4,930억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증가함
 -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이번 분기 총 순이익은 2007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경기회복은 다양한 사건에 의해 매번 좌절됨
 - 1992년 '버블 붕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소비세 인상,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진 해일 등의 사건이 일본의 경기회복을 저지

□ 현재 일본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은 지난 6년 동안 일본의 최대 교역 국가로 자리매김
 -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중국 해외매출 비중은 10년 사이에 10%에서 20%까지 증가함
- 일본 제조업체들은 과거 엔화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몇 년 동안 디플레이션과 내수시장 침체를 견디기 위해 경쟁적으로 중국에

진출

□ 일부 일본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위안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대적인 반등으로 비춰짐

- 최근 위안화 대비 엔화 가치가 지난해 이후 23% 하락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매우 낮은 수치임
- 그 원인은 일본은행이 올해 통화완화책을 실시하여 엔화 가치는 하락한 반면,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했기 때문
- 욱실용품 전문회사 '토토'의 경우, 중국 매출액은 11% 감소하였으나 엔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4%나 증가함
- 파나소닉 역시 에어컨과 컴프레서 판매가 부진하여 중국 매출이 19% 감소하였으나 엔화로 환산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기업의 회복세를 발목 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됨

- 두세 해 전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던 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상당히 줄어들어 7.5%를 기록함
-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7.5%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GDP가 1% 감소하면 일본 경제성장률은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이 0.5% 감소하면 일본 비금융권 대기업의 경상이익은 약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일본의 자동차업체는 반일정서가 중국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도요타 자동차는 엔화 약세와 비용절감에 힘입어 최근 기록적인 분기 순익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7월 중국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함
- 이는 지난해 중일 간 영토분쟁으로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것이 중국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해석됨
- 도요타는 반일정서가 중국에서의 올해 자동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음
 - 도요타는 중국에서 올해 자동차 90만대 (전년 대비 7% 증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중임

- 과거에는 중국 동부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수요가 많았지만, 이제는 수요가 중부와 서부 공공주택으로 이동하는 중임
- 히타치의 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 데에서 기인함

□ 중국의 경기가 활력을 되찾지 않는 이상 일본 기업의 경기 회복은 당분간 지체될 것으로 전망됨

- 후코쿠 상호생명의 모리자네 준야 선임 경제연구원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면,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본 경제에 최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 진단함

- 전자업체인 히타치는 2분기에 순익이 5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를 고려하여 올 한 해 순익 증가율을 20%로 전망함
 - 히타치의 해외 매출 비중은 중국에서 11%로 북미나 유럽보다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히타치의 중국 매출이 25% 상승한 이유도 역시 위안화에 대한 엔화 가치 하락 때문임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주찬 (kjcjuchan@hanyang.ac.kr)

Associate Editor: 성민화 (alsghk1014@hanyang.ac.kr)

Copy Editor: 전주영 (junjy9111@hanyang.ac.kr), 박인철 (star11kers@hanyang.ac.kr)